왜 손대는 일마다 잘 안 될까?

(골1:15~23)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왜 손대는 일마다 잘 안 될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왜 손대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여러분,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한 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럽여행을 가서 독일에 들렀습니다.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가 자기가 묵는 숙소 근처에서 아름답게 생긴 병을 하나 발견합니다.
병에 라벨이 붙어서 설명이 적혀있는데 독일어를 모르니까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궁금해서 쭉 훑어보다보니까 낯이 익은 단어가 하나 눈에 띕니다.
Gift, 기프트라는 단어에요, 이 기프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도 Gift shop이 많으니까.
영어로 선물, 혹은 내게 주어져 있는 재능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기프트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니까 이 병에 든 내용물이 분명히 좋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만든 단편소설 아니, 초 단편소설이지요.
독일에서의 Gift는 영어에서의 Gift와 뜻이 같지 않습니다, 스펠링은 똑같은데.

영어에서 선물이나 내가 받은 재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독일어의 단어는 '가베'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gabe.
그리고 스펠링이 같은 Gift는 독극물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제가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그 사람이 그 병을 열고 들이키려고 했다면 목숨을 걸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그러면 한 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내가 손대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겁니까?
사업부터 작은 일 큰일, 그리고 자식 기르는 것도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잘 안 된 일 그 어느 것도 그런데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이런저런 내 잘못 때문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깊게 보면 다 하나님아버지께서 독극물을 마시는 사람을 보고 목숨을 걸고 말리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손대는 일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자기계발서를 덜 읽어서도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몸에 익히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막으십니까?
이유는 내가 손대서 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내게 영어의 Gift 선물이 아니라, 독일어의 Gift, 독극물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사건건 우리가 손을 대서 이루고자 하는 일마다 막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독극물인데, 우리는 너무너무 무식하고 용감하게도, 무식하다는 것은 내가 손대는 일이 이루어지면 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용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걸 죽을힘을 다해서 이루려고만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잘되면 내게 크게 유익해서 분명히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독극물 병에서 Gift를 보고, 이건 분명히 선물이고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얘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손을 대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게 유익합니다.
내가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독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손대는 게 이루어졌다면 그건

독을 마신 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손대는 일이 뭡니까?
돈 벌어 부자 되는 일, 승진하는 일, 사업하는 일, 일류대학 들어가는 일, 명품을 사는 이런 일들, 좋아하고 소원하고 있는 이런 마음상태,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독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손대고 이루게 되면 독을 마시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않는 것이지만, 향해서 손을 대는 상태가 이왕에 주어져있다면 이 상태에서의 최선책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손을 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원래 인간으로 지음 받은 존재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지요?
분명히 모르실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 도대체 왜 우리가 손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목에 대한 설명들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예수그리스도라는 말에 이어서, 만물이 바로 그 예수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수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수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얘깁니다.
게티즈버그에서 링컨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 이 세상만물이고, 그 만물 중에는 우리의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냐?
그 다음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 위에 계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심을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손대는 일이 안 된다는 것과 관계가 되느냐?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이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만물들 중에 속해있는 것들이에요.
즉,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의 오복들이 다 만물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만물이 처음에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던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만물들 중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손대기 전에, 도대체 내가 손대서 이루고 싶은 만물들에 속해있는 그런 나에 관계된 일들은, 원래 창조될 때 생래적으로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난 만물들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쓸데없이 자기 계발서나 뒤적거리고 성공 세미나 다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같은 것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이루고 싶어 하는 이 일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진 일들인데, 이 일들의 본래의 생리적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오늘 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손대기만 하면 안 되는 이 일의 본성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 만물 안에는 내 모든 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일들이 다 포함되어있는 그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아버지와 아들하나님 예수그리스도밖에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전적으로 흘러가고, 아들의 사랑이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사랑의 교류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시선은 단 한 순간도 아들 예수님에게서 다른 대상으로 갈 수도 없고, 다른 대상이 없으니까, 또 대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해서 마찬가지세요.
영원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보고 계시는데, 창조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창조는 예수님 말고 다른 대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 시선과 사랑을 주고 계시던 것을 잠깐 멈추시고, 만들어질 대상과 만들어질 대상이 놓일 그 영역으로 시선을 돌리셨을까요?
아니라는 얘깁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한 순간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요.
열렬하게 사랑하는 남녀에게는 자신의 애인과 무관한 일에 대해서는 의미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시선이 애인에게 24시간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내 마음에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지려면 애인과 관계되는 일이여야 됩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던 시선을 멈추시고 예수님 말고 다른 영역의 피조물들을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시선과 사랑이 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뒤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 뒤에다 만들어놓으신 게 바로 이 세상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이 나타나게 되는 프리즘입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일곱 가지 색깔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시선과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나타난 게 이 세상만물이고, 내가 지금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는 사업, 돈, 승진, 예술, 학문, 모든 게 다 예수님 뒤에 생긴 프리즘의 결과라는 얘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도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것을 대비해서 아기 방을 만들어놓고 아기가 쓸 모든 물건을 다 장만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은 아기를 향한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다 나타난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만, 만약에 아기가 잘못돼서 사산을 했다면, 그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사업, 내 가정, 이런 게 예수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대로 이해하자면.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아들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창조의 순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시선과 사랑이 당신 뒤에 만물을 만들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시선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서 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서 떼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만물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만물은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주님이 그 만물을 어떻게 관계하시고 대하시느냐 하면, 지금 아버지께서 당신을 바라보시고 당신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당신을 통과하면서 만물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만물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만물을 직접 보시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은 '아, 빛이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공생애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 많지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만 듣고 보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에 대해서 등을 돌리신 겁니다.

또한, 말씀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내가 행한 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형국을 묘사하자면, 이 세상만물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이 만물에 대해서 등을 돌리시고 아버지만을 향해서 아버지를 껴안으십니다.
그렇게 되자 아들을 껴안으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등 뒤로 그 아들과 관계되는 제자들이나 이 세상에 대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일은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손 하나 대지 않으시고, 아버지만을 껴안고 등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껴안고 다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왜 만드셨을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를 맺다보니 예수님의 마음에 아버지 때문에 너무 기쁘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기쁨에 동참하는 인격자들을 만드신 게 인간들입니다.
어디다 만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등 뒤에 바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만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고 그리고 또 만물 중에 좋은 게 너무나 많지만, 그 만물이 왜 존재하는가 하면, 등을 돌리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좋은 게 많은 만물에 대해서 등을 돌림으로써 '나는 아버지하나님을 만물 중에 좋은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만물들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가정과 사업, 내가 끔찍하게 좋아하는 내 자식과 학벌과 명예, 이런 좋아할만한 것들이 없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좋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등을 돌리고 아버지를 향할 때, '아,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우리 사랑이 표현되고 아버지께서도 그 사랑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을 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 등을 돌리고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자식을 주신 것도 자식을 향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자식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자식이 원수지 무슨 큰 덕이 됩니까?
큰 사업을 주신 것은 사업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함으로써 하나님사랑을 표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세상만물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아버지만을 향하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 세상을 향해버리고 아버지를 등져버린 겁니다.
이게 21절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만물을 향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만물을 사랑한다는 얘깁니다.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마음이 첫 번째로 좋아하고 우선적으로 좋아하고 내 마음의 기쁨과 우울함과 불안을 결정짓는 일들이 다 세상일들인 거예요.
내가 손대는 일들이 안 되면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손대는 일이 되면 조금 기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향하는 이 상태에서부터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주고 망하게 해주는 독극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된 독극물들을 우리가 손대면서 일을 잘 될 때,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Gift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이 사업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결정하는 것이 향하느냐 안 향하느냐 결정짓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사업을 향하고 자식을 향하고 이 세상만물을 향하고 하나님은 등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더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왕에 지금 현재, 이 죄의 습성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수 있는 차선책은 뭐냐?
그 일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면서 손대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아직도 죄의 습성에 의해서 이 세상 것을 향하고 있고 손대고 있더라도,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은 기분 나쁘지만, 생각으로라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안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있어서 세상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주님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계심으로써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고 계셨다, 나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이걸 보고,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손대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모든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자, 이겁니다.
그러므로 손댄 자체가 내게 독인 거예요.
손을 안 대고 사는 겁니다, 등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등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손 안 대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삶이에요.
이 이루어나가는 삶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다음 부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머리로서 만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손대는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걸 막으십니까?
하나님께 등지고 내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게 있어서 손대는 것 자체가 독을 발생시키는 일이

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 독에 취해버리고 그 독을 마시는 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죽자고 막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등졌던 하나님을 향해 가서 맞이하고, 세상에 대해서 등짐으로써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왜 손대는 일마다 안 이루어지는가, 그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등지고 세상을 향해 있다면, 손대는 일마다 안 이루어짐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등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